

다. 그런 삶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주택이다. 1927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 오드(J. J. P. Oud), 피터 베렌스(P. Behrens), 마르트 슈탐(M. Stam), 빅터 부르주아(V. Bourgeois) 등의 건축가들이 공동주택단지를 계획했다. 이는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방향을 제시했다. 당시 삶을 정의한 셈이다. 그리고 1930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도 아돌프 로스(A. Loos), 요셉 호프만(J. Hoffmann), 요셉 프랑크(J. Frank), 게리트 리트벨트(G. Rietveld) 등이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며 주거를 당시 시대정신인 모더니즘으로 해석했다. 이런 흐름을 이해한다면 현재의 젊은 건축가들이 은연중에 표현하는 주거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주거 환경을 같은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면 미래 주거에 관한 제의도 가능할 것이다. 비엔나 시 관계자가 한 말이 생각난다. 오스트리아 건축가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주택을 짓지만 미국에서는 빌딩을 짓는다고. 주거는 쉽지만 어렵다.

■ 금번 행사는 참여하는 건축가들과도 많은 교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번의 답사나 방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참가자들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할 듯하다. 더불어 행사 이후의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가능성이 어떻게 이용

될지는 모르겠다. 젊은 건축가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랄 뿐이다. 같이 만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축가들과 모여서 의견을 나눌 것이다. 관심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모임과 만남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관심은 있는가'이다. '관심이 있으면 관심을 보여라. 함께 하자'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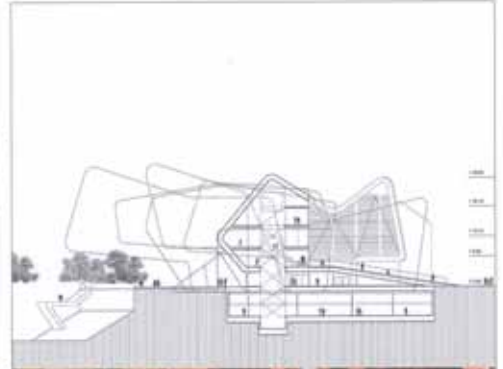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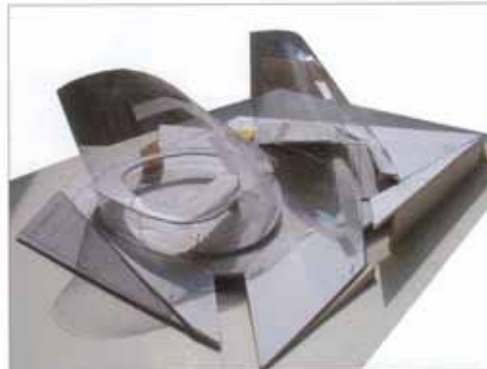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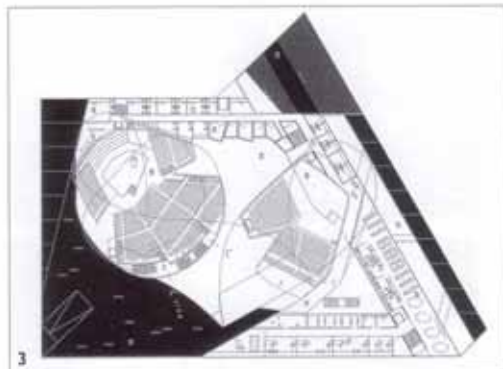
그리고 오는 2003년 5월에 한국, 일본, 중국, 오스트리아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순회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제 젊은 건축가 모임은 대외적인 기획 행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를 통해 이들은 유럽과 아시아의 건축인들이 동시대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서로가 함께 실질적으로 일을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려 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있는 멤버들의 국가들까지 확대하여 이러한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답사나 워크숍, 세미나, 학술대회와 같은 여러 형태의 행사를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교류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 한다. 기성 건축가들은 자신의 영향권과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에 있어 그리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건축가들 내에는 모든 건축에 대한 정보와 기술을

한 곳에 집중시켜 독점적 형태로 가지고 가는 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 이병훈 씨의 주장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이해관계 속에 편입되지 않은 젊은 건축인들이 새로운 교류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런 흐름은 그들 각자가 갖고 있는 작품 세계 이상으로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들의 이번 행사에 대해 현지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건축저널인 <bauforum>에서 취재기로 했으며, 후원사인 인 프로그레스를 통해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다른 저널들과도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본지도 금번 행사 이후 그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을 중심으로 리뷰해보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하는 젊은 건축가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자리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조경재 기자 zerotext@hanmir.com)



1, 2. 버스 아키텍츠(BUS-Architects), <Compact City>
3~4. 어번피쉬 아키텍츠(urbanFish.architects), <Kunshaus>
5. 어번피쉬 아키텍츠, <Sarajevo Concert Hall>



발행인 겸 회장 이용홍

편집주간 김병철
편집자문위원 김민철(서울), 류춘수(서울), 우동주(부산),
이왕기(대전), 천득영(광주), 한태수(대구)
편집위원 김성홍, 민규암, 서현, 이상구, 이종호,
임영한, 정인하, 조용수, 홍성태

전무이사 이재홍

편집장 박기원

디자인 대리 김재경
취재 팀장 조경재, 김경진, 우영선(객원)
객원사진기자 강일민, 김동걸, 박영재, 진호숙

마케팅 팀장 신창호, 대리 박장혜
경리담당 정인숙

<월간 이상건축> 1992년 5월 26일
창간(등록) 등록 과 5569
2002년 8월 1일 발행 (매월 1일 발행)
정가 8,000원 (연간 구독료 80,000원)

발행처 (주)이상건축
135-875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124-25
TEL: 02-549-5383(대), 02-554-1923(편집부)
FAX: 02-554-4386

601-013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153-14 일신빌딩
TEL: 051-462-4711 FAX: 051-468-9300

청구구독 및 광고문의
TEL: 02-549-5383 FAX: 02-554-4386
e-mail: ia1833@kornet.net
http://www.idealarch.co.kr

인쇄 (주)타라티피에스(TEL: 031-945-1090)
분쇄 및 출력 선우프로세스(TEL: 02-2272-1210)

<월간 이상건축>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경영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월간 이상건축>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또는 복사를 금합니다.

포토스쿠프

020 영원의 순간을 찾아서... · 이준호/ 프리랜서

주간 칼럼

025 광장의 두 얼굴- 전체주의와 공공성 · 김봉렬/ 본지 편집주간,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뉴스

026 · 편집부

포커스: 월드컵과 광장- 세종로와 서울시청 앞

044 우리 시대 광장 만들기 · 편집부

050 붉은 악마 현상과 광장 문화 · 홍성태/ 상지대학교 교양과 교수

기획취재

052 정동 문화 유산과 미국대사관 신축 논쟁 · 편집부

062 미국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지역은 옛 덕수궁 터 · 김정동/ 육원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근작

066 A.ma건축 주택 2제: 사유와 점유- 대심리 하우스, 대심리 동판집 · 제갈엽/ (주)A.ma건축사사무소

096 포항공항 여객터미널 · 김정식/ (주)까지종합건축사사무소

114 대치동 896-22 다가구주택 · 박훈영, 박영욱, 최아사/ 건축연구소 A.rum

특별기고

126 다름이 존재하는 사회 · 전인호/ 건축연구소 아르리에 테스박스 소장

128 변화와 생성: 새로운 건축사협회의 필요성 · 황두진/ 황두진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연재: 다시 보는 우리들의 주거(VI)

-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의 소규모 민간 아파트

131 아파트의 새로운 전통 · 장필종/ 연세대학교 건축도시공학부 교수

142 새로운나온 책 · 편집부

Contents

ideal

08
2002 No. 120

ideal architecture / 이상건축
monthly review of architecture



© 2002 Ideal Architecture.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www.idealarchitecture.com